

<媠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의 유형과 의미

오 선 주(전북대)

<국문초록>

이 글은 서사민요 가운데 하나인 <媠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의 유형과 의미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노래가 갖는 문학적 의의를 조명해보려는 목적 아래 작성된, 일종의 試論的 보고서이다. 그 동안 이 노래는 여성의 적극적인 현실 대응방식을 반영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크게 주목받아왔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서사민요라는 범칭 아래에서 개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에 이 글은 문헌에 수록된 노래의 사실을 중심으로 독립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특히 시가식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며느리가 어떠한 양상으로 항의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며느리의 항의가 여성성의 회화화, 중살이, 자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18세기의 사설시조와 대비하여 媠家에서의 자기모색을 위한 풍자적 정서 표출로 문학적 의의를 조명해보았다.

서사민요의 성격 논의나 이와 관련된 민요의 위상 평가가 상당히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러한 개별 유형화적 논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개별 민요의 본래적 가치를 찾는 일은 이 시점에서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 부당한 요구, 항의, 여성성, 회화화, 중살이, 자결, 자기모색

1. 머리말

시집살이의 성격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병어리 삼 년, 소경 삼 년, 귀머거리 삼 년’이라는 말이 있다. 즉 며느리는 媠家の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 표현의 통로가 차단되어 왔다. 동시에 한 집안의 성쇠를 연유시키는 존재¹⁾로서 고달픈 시집살이를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에서 그 존재의의마저 상실되어 주변인적 생활을 하는 신세였다. 특히 시집살이 노래 중에서 시가식구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중이 되거나 자결한 며느리에 관한 노래가 주류를 이룰 만큼, 며느리는 억울한 존재요 불리한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시집살이 노래가 삶의 고난과 애달픔을 되뇌이며 원망과 한탄을 읊으면서도, “盡盡하고 柔順하며 暗示性을 가지는”²⁾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시가에 적극적인 맞섬의 자세로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말하는 며느리의 노래가 있어 주목되는데, <媠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³⁾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노래

1) 婦者家之所由盛衰也(『婚禮章』, 『內訓』)

2) 任東權, 『韓國婦謠研究』, 集文堂, 1982, 230면.

3) 이 노래는 흔히 서사민요라고 불리는 길쌈노동요의 한 유형인데, 여타의 민요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목 없이 불리어지고 있다. 다만 채록자와 연구자의 임의적인 논의에 따라 <媠家에 抗議>, <양동가마>, <양동가마 깐 며느리>, <器物을 깐 며느리> 등 다양한 용어로 명명되고

는 일반적인 형태의 시집살이 노래에 비해 시가식구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며느리의 “적극적인 현실타개 의지를 보여주는 해결방식”⁴⁾이라는 점에서 유달리 주목되었다. 그리고 이 현실 대응방식으로 말미암아 서사민요 전반을 다루는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민요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업적을 소화하면서 이제 더 필요한 과제는 서사민요라는 범칭 아래 크게 한 묶음으로 다루어져 온 일련의 노래들을 보다 독립된 유형화의 범주 안에서 재검토⁵⁾하여 그 전개 양상을 정밀하게 살펴보는 일이다. 선행 연구들이 서사민요라 지칭될만한 ‘서사성’에 관한 논의⁶⁾로부터 내용의 전반적인 특질을 파악⁷⁾하는 데까지를 주력했다면, 개별론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추구하는 일이 남겨진 몫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문헌에 수록된 <媵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는 총 24수⁸⁾이며, 서사 단락간의 뒤섞임이 거의 없이 일관되게 전개되면서 서사민요가 갖는 일반적인 서술상의 특징적 요소⁹⁾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개별적인 범주에서 논의될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각편 24수의 유형을 분류하고, 여기에 함의된 항의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그 며느리의 항의가 갖는 문학적 의의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다.

2. <媵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의 유형과 의미

<媵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는 시집온 며느리가 시가의 器物을 깨뜨리자 친정의 세간 전답을 팔아서라도 물어내라는 시가식구들의 요구에 대해, 자기 몸을 처녀 상태로 물려주면 변상하겠다고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각편에 따라서 ‘중살이’, ‘자결’의 모

있다. 이 중에서도 <양동가마>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媵家에 抗議>를 제외한 대부분의 용어는 각편에 사용된 소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어서 이 노래의 주제적 특색을 드러내기에는 미흡하다. 한편 <媵家에 抗議> 또한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媵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4)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 『口碑文學研究』 제9집, 韓國口碑文學會, 1999, 102면.
- 5) 많은 연구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媵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논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필자의 과묵한 탓에 혹 빠트린 논문이 있으면 이후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
- 6)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趙東一, 『敍事民謠研究』(增補版),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 허남춘, 「<서사민요>란 장르규정에 대한 이견」, 『제주문화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 박경수, 「민요의 서술성과 구성원리」, 『한국 서술시의 시학』, 대학사, 1998 등.
- 7) 장성진, 「시집살이謠의 類型과 人物」, 『女性問題研究』 13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서영숙, 「서사민요의 구조적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우리민요의 세계』, 역락, 2002;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 『口碑文學研究』 제9집, 韓國口碑文學會, 1999 등.
- 8) 본고는 任東權의 『韓國民謠集』(集文堂)과 『韓國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研究院) 소재 <媵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를 주 텍스트로 삼았다. 각편 24수의 출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韓國民謠集』은 권수와 歌番(#)으로, 『韓國口碑文學大系』 권수와 면수로 표시함.)
I - #529, #530, II - #985, #992, #993, III - #988, IV - #601, #604, #606, #616 #617, #620, #622, #628, #630, #633, (이상 『韓國民謠集』), 「1-8」· 550면, 「3-4」· 920면, 「5-7」· 566면, 「8-3」· 608면, 「8-6」· 998면, 「8-10」· 494면, 「8-11」· 314면, 「8-14」· 821면.(이상 『韓國口碑文學大系』)
- 9) 趙東一은 서사민요의 요건으로 “(1) 일정한 性格을 지닌 人物과 (2) 일정한 秩序를 지닌 事件을 갖춘 (3)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敍事民謠研究』(增補版),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43면.)

티프가 각각 이 줄거리의 후반부에 나타나면서 사실이 확장되기도 한다. 이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술패턴 \ 모티프	기물 파손	변상 요구	친정 왕래	항의	결말			각편의 수
					화해	중살이	자결	
(가)	o	o		o				8
(나)	o	o		o	o			10
(다)	o	o		o		o		2
(라)	o	o	o	o		o		2
(마)	o	o	o	o			o	2

위의 표에서 보듯 각편 24수는 총 다섯 가지의 서술패턴이 나타난다. 이들 서술패턴 가운데 數的으로 많은 우세를 보이는 것은 (가)와 (나)이다. 이 두 패턴 중에서 (가)의 모티프가 나머지 네 가지 패턴에서도 빠짐없이 실현되고 있는 바, 이것은 (가)의 패턴이 항의요가 항의요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서술 요건임을 시사한다.¹⁰⁾ 그런데 이 (가)의 경우는 의미적 맥락에서 (나)와 동일한 유형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결말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수적 우세의 비등함으로 미루어볼 때, 궁극적으로는 항의를 통한 심리적·가상적 화해가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가)와 (나)의 서술 패턴이 <媼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 속에서 ‘일반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라)와 (마)의 경우는 기본 줄거리에 ‘친정 왕래’의 사실이 삽입되면서 각각 비극적 형상화인 ‘중살이’와 ‘자결’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으며, (다)는 기본 줄거리만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이 되는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다)와 (라)는 동일한 결말을 형성하고 있어 이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밀함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이 둘을 같은 범주 내에서 논의될 수 있겠다. 결국 이들 패턴은 수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지만, ‘일반형’에서 다소 의미가 변화된 ‘변이형’으로서 또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지금부터 이들 유형에서 며느리의 항의가 어떠한 양상과 의미로 전개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여성성 희화화의 재치와 화해

항의는 흔히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여겨 반대하는 뜻을 펼치는 것이다.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과는 별개의 사항을 주장해야만 올바른 항의가 된다. 요컨대 자기 주장의 범람만이 항의의 요건은 아니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항의의 요체라 할 것이다. 새로운 생활 공간이자 또다른 가치 영역인 시가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며느리에게 이 기반은 더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혼인 과정을 근거로 내세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혼인 과정이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적인 웃음으로 형상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I) 시집오든 사흘만에 가사구경 하라하고

10) 이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각편, 곧 ‘기물파손’ 혹은 ‘기물파손+변상요구’로만 이루어진 패턴은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아랫도장	나려가서	銀蠶하나	만지다가
	銀蠶을	깨트렸네		
(II)	고초같은	시아바씨	청붓틀	걸았으며
	아래왔는	저미느라	너그집에	가그들랑
	銀蠶하나	물어다고	회초같은	시어머니
	방문왈각	열터리며	아래왔는	저미느라
	너그집에	가거들랑	노비전답	다파나마
	銀蠶하나	물어다고	앵도같은	시누씨는
	청에통통	다니면서	아래왔는	저각씨야
	너그집에	가거들랑	말매소매	다파나마
	銀蠶하나	물어내게	홍글홍글	맛동서는
	이리가며	홍글홍글	저리가며	홍글홍글
	홍글홍글	야단일세		
(III)	듣는신부	할일없이	저그방에	들어가서
	돛자리를	피여놓고	좌면도듬	올리피고
	시아버님	여았이요	시어머님	여았이요
	만동서도	여았이요	시누씨도	여았어서
	이내말을	들어보소	七八月	김장밭에
	동피같은	當身아들	나와같이	옷을입혀
	사인교	차리미고	허다동내	다지내고
	억만장안	깃치달라	나의집을	찾아와서
	정바상을	돌릴적에	八幅屏風	돌려치고
	닭한쌍을	마주놓고	나무접시	디밀쩍에
	銀蠶하나	大端튼가	잘가시오	잘게시오
	은소잡아	作別할제	銀蠶하나	大端튼가
	밤중새빌	모를적에	온칸몸을	헐었으니
	온칸몸을	채와주면	銀蠶하나	물어춤세
(IV)	시아바씨	이말듣고	앗다말아	남이알라
	너그릴줄	내몰랏다	孝婦로다	孝婦로다
	앞東山	낭클비어	뒷東山에	터를담아
	삼간빌땅	지어주마(I-#529)		

(I)에서 ‘銀蠶하나 만지’는 행위는 시집살이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이 ‘銀蠶을 깨트렸’으니 며느리로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때 기물 파손의 원인이 낫설음이나 부주의에서든 혹은 두 가지 의미의 중첩이든 간에, 훈계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 며느리의 처지이다. 각편에 따라 며느리의 실수는 시가식구에 의해 계획적으로 의도되기도 한다. ‘짚불때서 볍을랑깨/ 여시같은 시누애기/ 참나무장작을 갖다춤서/ 그놈때서 볍으라네’(II-#993)에서는 이미 시누이에 의해 솔이 깨질 상황이 부여되어 있다. ‘짚불때서’ 깨를 볍으려는 며느리에게 ‘참나무장작을 갖다춤’으로써 솔이 달아올라 깨어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여하튼 며느리의 실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서 고난을 겪으리라는 것이 서두에서 암시되고 있다.

(II)의 대목은 며느리의 실수를 두고 시가식구가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시아바씨’, ‘시어머니’, ‘시누씨’가 차례로 동일한 내용의 변상요구를 하고 있으며, 같은 며느리인 ‘맛동서’마저 간접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시가식구와 며느리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

된다. 동시에 이들 시가식구의 변상요구가 일반적인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며느리의 고난은 증폭된다.

‘친정에 가서’, ‘재산[노비전답·말·소]’을 다 팔아서라도 은잔 값을 물어내라는 것이 시가식구의 요구이다. 여기서 좀더 고려해야 할 점은 변상요구에 담겨 있는 시가식구의 며느리에 대한 인식 태도이다. 우선 변상 방법으로 ‘친정’을 통해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며느리의 실수를 빌미로 하여 사돈택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시가식구가 제시한 변상 값과 관련한 어휘의 관계를 살펴보면, ‘銀蠶하나’ ≥ ‘노비전답·말·소’의 관계를 이룬다. 이 관계 역시 시가식구의 사돈택 재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식구의 입장에서 며느리의 실수는 자연스럽게 ‘실수’ ≥ ‘친정 재산’의 관계로 집약된다. 즉 며느리의 실수를 사돈택 재산과 동일시한 것으로, 환언하자면 며느리의 가치를 사돈택의 재물로 인식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시가식구의 태도는 며느리가 관용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요구이다. 며느리가 항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어지는 ‘듣는신부 할일없’는 모습이 뒷받침하듯, 며느리의 항의는 단순한 반발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견상의 ‘할일없’는 모습과는 달리 며느리의 대응은 공손하면서도 당찬 면모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Ⅲ)에서 며느리는 즉각적인 항의를 자제하고 방안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방문왈각 열터리’거나 ‘홍글홍글 야단’스러운 시가식구에 비해 정숙하고 공손한 모습이다. 이때 며느리의 방, 이른바 규방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 또한 중요한 몫으로 자리한다. 규방은 다른 곳과는 달리 언행이 보다 자유로우며, 더 나아가 여성의 존재적 가치가 확인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간에 시가식구들을 모두 불러모은 뒤에 항의하는 모습은 자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는 혼인 당시를 재현하며 자신의 입장을 펼쳐 나간다. 잠시 혼인 장면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허다동내 다지내고/ 억만장안 짓치달라’ ㉡ ‘나무접시 디밀쩍에’ ㉢ ‘銀蠶하나 大端튼가’, ㉣ ‘은소잡아 作別할제’ ㉤ ‘銀蠶하나 大端튼가’. ㉠은 신랑의 親迎이고, ㉡는 신랑측에서 ㉢는 신부측에서 각각 준비한 幣物에 해당한다. 이때 ‘나무접시’의 물질적 값어치는 ‘은소’뿐만 아니라 ‘銀蠶하나’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측에서 ㉣와 같이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의 신랑측 행동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관계한다. 수많은 집안을 제쳐두고 먼 곳까지 찾아 온 것은 신부와 신부측 집안을 높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나무접시’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억만장안’으로 집약된 거리만큼 그 무엇보다 신부의 존재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가치 관계는 ‘신부(며느리)’ > ‘은소’ ≥ ‘나무접시’ > ‘銀蠶하나’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銀蠶하나 大端튼가’의 반문은 이제 와서 자기보다 재물을 중시하여 변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가 결론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 이르면 시가식구와 며느리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최고조에 이른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소 영똥한 발언을 함으로써 이 긴장감을 극적으로 터뜨려 버리고 있다. ‘밤중새빌 모를 적에/ 온칸몸을 헐었으니/ 온칸몸을 채워주면/ 銀蠶하나 물어줍세’가 그것이다. 이것은 “비극적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발상”¹¹⁾일 정도로 희극적인 반전이다. 바로 깨진 기물을 첫날밤 남편의 성행위로 인해 훼손된 처녀성에 비유하여 자신의 여성성을 희화화하고 있다.

11) 서영숙, 「서사민요의 구조적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235면.

주지하듯이 속언에서 여성의 경박스러운 행실을 그릇이 깨지는 상황¹²⁾으로 풍자할 만큼 이들 표현은 듣기 거북스러운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나 며느리는 오히려 이 이미지를 서슴없이 들추어내어 재치를 발휘하고 있다. 즉 ‘銀蠹’이 깨진 것으로 시작된 대립적 정서를 ‘온칸몸을 혈’은 성적인 부분으로 굴절시켜 자연스런 웃음은 물론 깨진 처녀성에 대한 보상심리까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며느리의 보상심리가 남편을 원망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여성성을 노출시켜 ‘깨짐’ 그 ‘온칸몸’ = ‘銀蠹’과 같은 관계식으로 연출함으로써 시가식구의 요구를 깨뜨리는 데 있다. ‘깨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첫날밤의 상황과 결부시켜 회화적 웃음으로 이끌고, 이 웃음과 함께 시가식구의 요구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치 있는 며느리의 발언에 대해 시가식구는 (IV)와 같이 궁색하게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각편에 따라 ‘옥식기를 반죽하고/ 한꺼번에 깨어봤다’(IV-#616), ‘내며누리 말잘하네/ 이제는 암말말고/ 의논 좋게 살아보자’(IV-#628)며 시어머니가 자신의 젊은 시절 실수담을 고백하면서 며느리를 달래기도 한다. 이들 일련의 반응은 자신들의 부당성을 숨기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저절로 웃음을 머금게 한다. ‘앗다말아 남이알라’처럼 남의 눈을 피하려는 조심스러움과 며느리의 존재 가치를 ‘孝婦’로 높여주는 심리상태가 그것이다. 비단 婦道라는 윤리적인 관념은 배제하더라도 시가에 항의하는 며느리가 효부로 일컬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때의 ‘孝婦’는 자신들의 부당성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며느리의 가치를 희극적으로 높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 근거의 하나는 이미 지적했듯이 ‘남이알라’, ‘암말말고’에 담긴 주위 시선에 대한 조심성이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의 재치 있는 발언과 부합할 만큼 엉뚱한 표현 수법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일종의 며느리의 보상심리를 달래기 위한 정신적인 화해 조건인데, 이 과정에서 포착되는 시가식구의 조급한 심리와 과장된 형상은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은 실수를 빌미 삼아 사돈택의 재물을 획득하고자 했던 시가식구의 의도에 대해서 며느리는 혼인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논리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자기 여성성의 회화화로 반전시킴으로써 희극적인 화해를 이끌고 있다.

2.2. 시가의 부당성 폭로의 일탈적 중살이

앞서 살펴본 일반형과는 달리 다음의 변이형에서는 비극적인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기본적인 사건이 비록 동일하다 할지라도 며느리의 대응방식에 따라 의미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일반형과 중첩되는 언급은 피하면서 항의의 전개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며느리가 일차적으로 항의를 한 뒤 시가에서 일탈하여 중이 되는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며느리가 친정을 다녀오는 행위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는 며느리가 친정을 다녀오는 경우이다.

- (I) (며느리가 器物을 깨뜨린다.)
- (II) (시가식구가 변상을 요구한다.)

12) “그릇 깨졌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구멍 뚫는다.”, “여자는 돌면 버리고 기구는 빌리면 깨진다.” 등이 그것이다.

- (Ⅲ) 아해종아 말몰아라 어른종아 부담해라
 어서배뻬 가자 마당안에 들어서이
 (……)
- 편지받은 우리오빠 여얏이소 저얏이소
 승낙했는 우리아배 여얏이소 저얏이소
 설흔세칸 지해집 파나마나 양동값을
 물어주소 허락하는 우리어매 여얏이소
 저얏이소 설흔세칸 시해집 파나마나
 양동값을 물어주소 양동값이 일때로
 돈도천영 은도천영 삼천영 지경이다
 아해종아 말몰아라 어른종아 부담해라
 (이절 미상)
- (Ⅳ) 사랑문을 열어치니 범겜은 시아버님
 여얏거나 저얏거나 큰방문을 열어치니
 현채같은 시어머님 여얏거나 저얏거나
 사랑문을 열어치니 창칼같은 맏동서야
 여얏거나 저얏거나 콩꼬타리 시아재비
 여얏거나 저얏거나 돈도천영 여기있다
 은도천영 여기있다 삼천영이 지검이다
 밤중밤중 야밤중에 분절겜은 으내몸에
 거무겜은 자기아들 손한번만 씨었으만
 그거매치 될거있대
- (Ⅴ) 한쪽들어 바랑짓고 한쪽뜯어 행금짓고
 팔도강산 끝없이 나는간다
 (……) (Ⅳ-#617)

(Ⅰ)·(Ⅱ)의 대목은 앞의 일반형과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Ⅲ)에서부터 그 성격이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일반형과는 달리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시가식구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모습은 며느리가 미리 친정에 편지를 보낸 상황과 그런 딸의 요청을 수락한 상태로 인해 더욱 부각된다. 이때 딸이 요청한 ‘양동값’ = ‘삼천영’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었던 저변에는 다분히 친정에서 ‘딸’ ≥ ‘설흔세칸 시해집’이라는 가치판단이 선행했음을 시사한다.

(Ⅳ)에서 며느리는 일반형과 동일하게 시가식구를 차례대로 불러모은 뒤에 항의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가식구와 며느리 사이의 긴장감은 지속되는 반면에 며느리 항의의 회화적 요소는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다. 이는 며느리의 의도가 서로 다름을 암시하는데, ‘운칸몸을 채워주면/ 銀蠶하나 물어줍세’와 ‘손한번만 씨었으만/ 그거매치 될거있대’의 발언 차이에서 확인된다. 둘 다 자신의 여성성을 희화화한 표현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피장파장식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즉 ‘손한번만 씨었지만’으로 상징되는 남편의 성행위로 미루어 볼 때, ‘그거매치 될거있대’에서 ‘그거’에 대응되는 표현은 바로 ‘양동값’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깨진 기물은 변상할 수 있지만 상실된 자신의 여성성은 변상할 수 없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인식 속에서 화해의 가능성은 매우 적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Ⅴ)와 같은 며느리의 일탈 행위는 어느 정도 수긍된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형과 그 구조적 측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일탈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

- (Ⅰ) (며느리가 器物을 깨뜨린다.)
 (Ⅱ) (시가식구가 변상을 요구한다.)
 (Ⅲ) 방을씹어 청을씹어 축담씹어 마당우에
 (……)
 은파뱅이 십진짜리 그기사 물어내지
 천냥짜리 내몸하나 내몸하나를 물어내소
 (Ⅳ) ㉠ 가요가요 나는가요 중의절로 나는가요
 한모롱이 돌아가니 까막간치가 울어쌓네
 한모롱이 돌아가니 중아동무 앉아있네
 중아중아 동무중아 내머리를 깎아주소
 (……)
 ㉡ 중아중아 동무중아 친정곳에 동냥가세
 대문안에 들어서니 울아버니 하는말씀
 샅짝에 섰는중이 내와말이 방상하네
 조선천하를 다맹기면은 같은사람이 없을쏘나
 (……)
 ㉢ 동냥가자 동냥가자 시갓곶에 들어가니
 마당에는 쭈밭이요 서까래는 나발불고
 피등에라 들어가니 시아버지 뒷등에는
 호령꽃이 피어있네 시어마씨 뒷등에는
 양살꽃이 피었구나 시누애기 뒷등에는
 할림새꽃이 피었구나 우런님 뒷등에는
 덮을꽃이 피었구나(『8-11』·314쪽)

(Ⅲ)의 대목 역시 항의의 회화적 요소가 약화되어 있으며, 그 의미 또한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제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며느리의 일탈 행위, 곧 중이 되는 의도이다.

(Ⅳ)의 ㉠에서 며느리는 시가식구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시가에서 일탈하여 중이 되고 있다. 며느리의 전체 공간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시가’→‘친정’→‘시가’ 순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순환적 과정은 ‘중살이’의 의미적 층위가 종교적인 차원¹³⁾보다는 사회적인 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현실 인식의 단면임을 짐작케 한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 삶의 현실에서 야기되는 정서나 삶의 단면들을 주체적 관점에서 인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의 대목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주지하듯이 전통사회에서 시가로부터의 일탈은 곧 자신의 몰락을 뜻하며, 친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일시적일 뿐 영원하지 못하다. 결국 자의든 타의든 삶의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 출가외인으로서의 여성의 삶이다. 그러나 ㉢에서 며느리는 이러한 여성적 삶의 한계에

13) 박경수는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벗어나기 위해 중이 된다는 것은 속세와의 인연을 단절하고 종교적인 귀의로 초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민요의 서술성과 구성원리』, 『한국 서술시의 시학』, 태학사, 1998, 238~239면.)

대해서 ‘동냥’과 ‘정체 숨김’의 행위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우선 ‘동냥’은 며느리의 삶의 연명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정체 숨김’은 혈연으로 맺어진 친정을 스스로 거부하는 정신적 절연에 해당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며느리의 중 되기 행위는 단순히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감정적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한 일탈임이 분명해진다. 바로 ‘동냥’과 ‘정체 숨김’이 시가에서 일탈한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삶과 절묘하게 대응방식을 이루며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중이 되는 것을 “폐배나 좌절로 보기보다는 말없는 향의로 읽을 수 있는”¹⁴⁾ 근거 또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중이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㉞의 대목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며느리는 시가로 되돌아오고 있는데, 이 복귀 과정은 중의 신분이기엔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시가식구의 무덤과 폐가이다. 시가층의 이와 같은 상황이 며느리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며느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써, 시가식구들의 무덤에 피어 있는 꽃의 형상이 이를 대변해 준다. ‘호령꽃’, ‘양살꽃’, ‘할림새꽃’ 등은 시가식구의 성격을 꽃으로 형상화¹⁵⁾한 것으로,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즉 꽃의 형상이 시가식구가 살아 있을 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죽어서도 ‘뿔등’의 꽃으로 피어남으로써 이들의 성격이 환기되면서 부당하게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부각된 재물욕심은 며느리의 눈을 통해서 생생하게 폭로되고 있다.

여기에 이르면 며느리의 의도는 보다 확연해진다. 기물 변상요구가 사소한 듯 보이는 일상사의 단면이지만, 지나칠 경우 심각한 문제로 변모될 수 있다. 바로 며느리는 이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화합이 아닌 일탈과 복귀의 행위를 바탕으로 시가식구의 부당한 재물 추구가 가져오는 병폐, 곧 폐가와 죽음을 세상에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며느리의 폭로는 자연스럽게 警世的인 의미를 수반한다.

이상으로 볼 때, 변이형 중 가출하여 증살이를 하는 내용은 서술패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화적 향의의 약화와 더불어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 맥락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며느리는 중의 신분을 활용하여 시가식구의 부당성을 세상에 폭로하고 동시에 이를 경세화하고 있다.

2.3. 객관적 진술과 존재 각인의 자결

향의를 한 후 자결을 하는 며느리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2수의 각편이 있는데, 사설의 길이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미상의 변화는 거의 없다.

- (I) (며느리가 器物을 깨뜨린다.)
- (II) (시가식구가 변상을 요구한다.)
- (III) 거러구로 친정왔네 떡한댕새기 술한병
 거럭저럭 시가갔네

14) 서영숙, 『우리민요의 세계』, 역락, 2002, 96면.

15)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호령을 잘한다고 ‘호령꽃’, 시어머니는 심하게 쟁가를 친다고 ‘쟁그리꽃’ 혹은 양살(시살)을 잘 부린다고 ‘아사리꽃’이나 ‘양알꽃’, ‘시살꽃’, 시누이는 꼬치꼬치 힘들게 한다고 ‘꼬치꽃’ 혹은 여우같이 간교한 짓을 잘한다고 ‘여시꽃’ 등으로 서술된다.(김학성, 「시집살이 노래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 『韓國詩歌研究』, 第14輯, 韓國詩歌學會, 2003, 288면.)

(Ⅳ) 사랑에	아번님요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떡하나	잡수시오	말삼한번	해봅시다
분통같은	당신아들	얼골이나	對面하세
대마같은	말로타고	우리집에	장개올제
무슨맘으로	장개보냈소		

(.....)

무슨맘으로	장개보냈소		
(Ⅴ) 사랑의	아버님요	인제나는	가나이다
아가아가	우리아가	인제가면	언제올래
藥田밭에	보리가	축트그든	오껴시오
큰방에	어마님요	인제나는	가나이다
아가아가	우리아가	인제가면	언제올래
국솔에	그국안친	국끓거든	오껏시오
작언방에	아가아가	인제나는	간단다
신야신야	우리신야	인제나는	간단다
밥솔에	밥안친밥	늬거들랑	오꼬마
솜郎에	書堂꾼요	인제나는	갑니다
인제가면	언제오나	뒷동산에	우는닭이
해치거든	오졌오	菜田밭에	보리가
축트도	아니오네	국솔에	그국안친
국끓어도	아니오네	밥솔에	밥안친밥
늬어도	아니오네	두시동산에	우는닭이
해쳐여도	아니오네	서당에	書堂꾼님
차가집에	가였드니	목매여	죽었다네(Ⅰ-#530)

(Ⅲ)에서 며느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시가식구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그 적극성은 매우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변상 값을 ‘金동우’ = ‘떡한땡새기·술한병’의 관계로 제시하고 있어서, 시가식구의 기대치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이 같은 태도는 변상이 반복되는 시가식구의 요구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자신의 의지이거나 긍정해서가 아님을 암시한다. 또다른 각편의 “저참쌀은 뭐할라노/ 너온다고 떡하라고/ 당가났다”(Ⅱ-#992)면서 친정에서 마련해 주는 대목 또한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Ⅳ)의 향의 역시 지극히 약화된 상태로 서술되고 있다. 혼인 당시의 재현이 ‘무슨맘으로 장개보냈소’로 마무리될 정도로 희화적인 요소도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면모는 지금까지 살펴본 며느리에 비해 가장 소극적인 대응방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탈 이후의 행동 양상은 가장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Ⅴ)에서 ‘인제나는 가나이다’의 발언이 전제하고 있는 지향점은 다름 아닌 친정이다. 그러므로 ‘인제가면 언제올래’의 물음은 시가식구의 지속적인 변상요구와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동반된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시가식구의 물음에 대해 ‘보리가 축트그든’, ‘국끓거든’, ‘밥안친밥 늬거들랑’, ‘우는닭이 해치거든’ 돌아오겠다고 답변한 후, 친정에 가서 ‘목매여 죽었다’는 데 있다. 이 답변의 내용 자체로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일상적인 언급이어서 며느리의 자결을 짐작할 만한 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객관적 위치에서 이를 진술하고 있는 방식은 새로운 면모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며느리의 언급을 살펴보면, (IV)의 ‘무슨맘으로 장개보냈소’와 (V)의 ‘○○거든/들랑 오꺼시오’이다. 이 때의 ‘무슨맘’에는 자신의 존재를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자신의 감정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의 범주에 속하는 ‘밭·국·밥·닭’ 등과 같은 다양한 가사 노동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존재를 극진하게 전달하고 있다. 즉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여성의 일상 생활과 행위에 빚대어 사실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신의 자결로써 각인을 보다 확고히 한다. 마치 ‘드는 줄은 몰라도 나는 줄은 안다’라는 속언처럼, 죽음을 통해서 가사 노동의 담당자인 자신을 공백화하여 시가식구가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니오네’의 반복과 ‘書堂군님 처갓집에’ 오는 행위가 곧 이것을 유도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며느리는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존재나 그 가치를 시가식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유형은 말없는 소극적인 항의이면서 가장 극대의 효과를 갖는 항의인 셈이다.

3. <媿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의 문학적 의의

지금까지 <媿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의 유형과 의미를 살핌으로써, 시가식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며느리의 항의가 여러 양상으로 형상화되고, 이 형상화 속에 내재된 주된 의식은 여성의 존재나 가치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이 노래는 부당한 상황에서 자기모색을 위한 행위 표출의 수단이자 정서 교류의 징표로써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8세기 歌集에 수록된 사설시조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A) 시약시 식집 간 날 밤의 질방그리 디엿슬 쓰러 버리오니

식어미 이르기를 몰나 달나 흥논괴야 시약시 對答호되 식어미 아들 놈이 우리집 全羅道 慶尙道로서 會寧鍾城 다히를 못 쓰게 쭈러 어기로쳐시니
글노 비겨 보와 냥의 장할가 호노라(瓶歌 #987)

(B) 식어마님 며느라기 닳바 벽바흘 구루지 마오

빛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처운 며느린가 밤나모 서근 들겘에 휘초리나 꺾치 알살피신 식어마님 벗빈 쇳동 꺾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곳부리 꺾치 썩족호신 식누으님 당피 가론 밧뵈 돌피나니 꺾치 시노란 윗곳 꺾튼 피뽕 누논 아들 호나 두고
건 밧뵈 밧곳 꺾튼 며느리를 어피를 닳바 호시논고(靑珍 #573)

위의 두 작품은 모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작품 (A)는 내용과 항의의 전개 양상 및 여성성의 희화화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살펴본 일반형과 매우 일치한다. 즉 갓 시집은 ‘시약시’가 질그릇 ‘디엿슬’ 깨뜨리자 이를 변상하라는 ‘식어미’에게, 서슴없이 ‘식어미 아들놈이……냥의 장할가 호노라’라는 식으로 항의하고 있다. 특히 종장의 ‘會寧鍾城 다히’는 여성의 음부를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밤중새빌 모를 적에/ 온칸몸을 헐었으니’에서 며느리가 자신의 여성성을 희화화한 것과 의미가 동일하다. 단지 종장의 ‘냥의 장’(피장파장)¹⁶⁾이라는 표현이 ‘온칸몸을 채와주면/ 銀蠶하나 물어줍세’에 비해 감정의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약시’의 대응 방식이 보다 적

극적이다.

작품 (B)는 얼핏 보기에 전혀 다른 내용처럼 여겨지지만 항의하는 기본적인 의도는 서로 일맥상통한다. 초장에서 며느리는 자신을 너무 ‘낮바’하지 말라고 시어머니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벽바홀’ 구를 정도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명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중장의 ‘빛에 바른 며느린가 감세 처운 며느린가’의 표현으로 미루어볼 때, 며느리의 존재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시가식구의 성격을 ‘회초리·씻둥·새 송곳부리’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의 중살이에서 꽃으로 형상화한 것과 동일한 시적 발상이다. 이 비유와 함께 중장의 끝구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에 이르면 갈등의 근원이 어느 정도 유추된다. 비록 병든 아들일지라도 남성을 중시하는 가족제도와 의식이 저변에 배치되어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러한 삶에 ‘되종고신’(말라빠진)일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 며느리는 바로 이 경직성을 시가식구의 성격 풍자화로 부각시켜 항의하는 반면, 자신은 ‘건 갖티 멧곳’(기름진 밭의 매꽃)에 비유하여 존재적 우위를 은근히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할 때, 위의 두 작품은 민간에서 불려지던 <媿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를 채록하여 사실시조로 재창작¹⁷⁾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과 형식 및 시적 발상이 일치 혹은 흡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환언하면 이 노래가 최소한 18세기(靑珍 : 1728, 瓶歌 : 1777~1800)에는 창작·전승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불려지던 이 노래가 시조화되어 가집에 수록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전통사회의 가족제도 하에서 정당한 자기표현이 제한되었던 여성에게 민요라는 장르는 해방구 그 자체였다. 시집살이 노래에 원망과 신세 한탄 및 비속어 등이 거침없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媿家에 抗議하는 며느리 노래> 역시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노래는 주된 내용이 가족 내 시가식구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징치하고자 하는 면모는 드러나지 않는다. 즉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나 위치를 모색하기 위한 회화적이고 풍자적인 항의이지, 남존여비사상의 타파나 가족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가집의 편찬자와 가창자들이 채택한 이유가 있는 듯 하다. 바로 여기에 이 노래의 문학적 의의 또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하겠다.

4. 맺음말

민요에 나타난 내용적 층위의 관심사는 실로 다양하다. 그런 만큼 이것을 형상화하는 방식 또한 다양한 양상을 띤다. 본고는 서사민요 중 시가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는 며느리를 주된 내용으로 다룬 노래를 중심으로 유형과 의미 및 문학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며느리의 항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수적으로 가장 지배적이면

16) 뜻풀이는 朴乙洙의 『韓國時調大事典』(亞細亞文化社, 1992.)을 참조하였다.(이하 동일.)

17) 高晶玉은 위의 (B)작품과 ‘어이려뇨 어이려뇨 식어마님아 어이려뇨/ 소대 남진의 밥을 담다가 늦쥬격 잘를 부르쳐시니 이를 어이혀려뇨 식어마님아 저 아기 하 걱정마스라/ 우리도 저머신세 만히 것거 보왔노라’(靑珍 #478)의 작품이 “今日の「시집살이 노래」와 完全히 通한다.”고 하면서, 특히 후자의 작품에 대해서 “이 內容은 閭巷民謠를 부똥어다 作者가 自己의 道德心을 發動시켜 改作한 것일가”와 같이 민요의 시조화를 조심스럽게 언급하였다.(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71~72면.)

서 기본적인 유형으로써, 시가식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혼인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논리적으로 항의한 후, 이 논리를 자기 여성성의 회화화로 반전시켜 화해를 이끌고 있다. 둘째는 회화적 항변은 약화되고 일탈 행위를 기반으로 항의하는 유형이다. 즉 중의 신분을 활용하여 시가에서의 일탈과 복귀의 과정으로 부당한 재물 추구가 가져오는 병폐를 세상에 폭로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는 수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이지만 가장 극단적인 방법인 자결로 항의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를 여성의 일상적인 생활영역과 담당자에 빗대어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그 담당자의 부재-자결로써 시가식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유형에는 며느리로서의 여성적 위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항의는 부당한 상황에서 자기모색을 위한 진술한 감정표출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 민요가 18세가 가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항의가 기존 제도와 가치에 대한 타파나 비판이 아닌 회화화와 골계화에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며느리의 항의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출발한 탓에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성급한 해석들이 존재할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은 더 많은 자료 검증과 보완을 통해 극복되기를 기약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韓國口碑文學大系』

『韓國民謠集』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 『口碑文學研究』 제9집, 韓國口碑文學會, 1999, 102면.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71~72면.

김학성, 「시집살이 노래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 『韓國詩歌研究』, 第14輯, 韓國詩歌學會, 2003, 288면.

박경수, 「민요의 서술성과 구성원리」, 『한국 서술시의 시학』, 태학사, 1998, 238~239면.

서영숙, 「서사민요의 구조적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235면.

_____, 『우리민요의 세계』, 역락, 2002, 96면.

任東權, 『韓國婦謠研究』, 集文堂, 1982, 230면.

장성진, 「시집살이謠의 類型과 人物」, 『女性問題研究』 13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380~384면.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43면.

허남춘, 「<서사민요>란 장르규정에 대한 이견」, 『제주문화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63~80면.

<Abstract>

A pattern and meaning of <Songs of a daughter-in-law for resisting her husband's family>

Oh Sun-Ju(Chonbuk Univ.)

This is designed to observe a pattern and the meaning of “Songs of a daughter-in-law for resisting her husband’s family”, and to illuminate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it. These songs have been notice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reflected the woman’s active responses to the real life. The arguments on these songs, however, have been made under the name of Narrative Folk Songs only in the general way.

Accordingly, this paper classifies these songs into a independent form, focused on the words of the songs. Especially, it is concerned about the daughter-in-law’s reponses to the excessive demands of her husband’s family. As a result, it can be shown that the resistance of the daughter-in-law is expressed in the forms of making a caricature of femininity, living like a monk, committing suicide, etc.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ir literary significance by contrast with that of Saseol Sijo in 18C, which means that a daughter-in-law satirically expressed her feeling to try to find herself in her husband’s family.

It seems that this kind of study should have been made before, because the discussion on the character of Narrative Folk Songs and, in connection with it, the estimation of folk songs are carried out many times. But, it is considered that studying original value of distributive folk songs has to be done at this point.

Key words: an excessive demand, resistance, femininity, making a caricature, living like a monk, committing suicide, finding out oneself